■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19-246.
http://doi.org/10.17948/kcs.2022..94.219

李珥의 靑詞 작성 문제에 대한 재검토*

김철웅(金澈雄)**

목 차

1. 머리말
2. 율곡 문집의 편찬과 靑詞
3. 「辭命箚」의 검토
4. 청사의 내용과 의의
5. 맺음말

국문초록

율곡 이이는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이다. 그는 도교를 左道라고 하면서 醮에 쓰일 靑詞를 작성하라는 선조의 명을 거부하였다. 이는 율곡이 도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가 지은 청사가 여러 편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栗谷先生外集』(1682)에 4편의 청사와 1편의 초제 축문이 실려 있고, 『文苑黼黻』(1787)에 청사 2편이 율곡의 제술로 수록되어 있다.

청사 작성을 거부하는 차자는 『율곡집』과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율곡이 이단에 비판적이며, 그의 학문이 순정하였음을 잘 드러나게 해준다. 율곡이 청사 저술의 명을 거부한 것은 중종 때에 조광조가 소격서 혁파를 주도하여 관철시킨 일과 비교된다. 율곡은 조광조와 달리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 소격서의 혁파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교수.

와 복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조광조의 몰락은 소격서 폐지가 결코 신하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율곡은 소격서와 초례의 폐지와 같은 이단의 척결에도 군주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소격서와 참성단에서 거행된 초례는 여전히 국가제례의 하나였으며, 이에 선조는 청사를 작성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러한 현실에서 율곡은 청사 작성의 명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지제교로서 청사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율곡이 작성한 청사 5편은 모두 다른 시기에 거행된 것이다. 이는 율곡이 여러 해에 걸쳐 청사를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율곡이 청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선조 때에도 초례가 국가제례로서 계속 거행되고 있었고, 성리학자도 관료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이이, 도교, 청사, 소격전, 참성단, 『율곡집』, 『율곡외집』, 『율곡전서』.

1. 머리말

퇴계와 함께 조선의 성리학을 대표하는 율곡 이이(1536~1584)는 불교와 노장사상도 깊이 연구하였다. 율곡이 불교에 심취하였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으며, 이에 관한 연구 성과가 적지 않다.[1] 율곡은 노장사상에도 관심을 가졌으니 성리학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한 것이 바로 『醇言』이었다. 이처럼 율곡은 성리학 외의 사상도 섭렵하였으니, 송시열(1607~1689)은 율곡이 經書와 함께 佛·老 諸書도 탐독하였으며, "儒道로서 禪에 합하였다."고 하였다.[2] 율곡은 한때 불교에 빠져들었고, 『도덕경』을 재해석했지만 불교와

1) 李丙燾, 『栗谷의 生涯와 思想』, 瑞文堂, 1973 ; 崔承洵, 「栗谷의 佛教觀에 대한 硏究」, 『江原大學論文集』 11, 강원대, 1977 ; 송석구, 「율곡 사상의 불교적 계기고」, 『동서 사상의 만남』, 형설출판사, 1982 ; 徐首生, 「退栗의 佛教觀」, 『한국의 철학』 15,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7 ; 李聖田, 「栗谷의 佛教觀」, 『釋山韓鍾萬博士華甲紀念 韓國思想史』, 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1 ; 이희재, 「율곡의 불교관」, 『율곡사상연구』 11, 율곡학회, 2005 ; 배종호, 「栗谷의 理通氣局說—華嚴思想의 理事와 比較—」, 『東方學志』 27, 국학연구원, 1981 ; 송석구, 「불교와 이율곡의 철학」, 『한국의 유불사상』, 思社硏, 1985 ; 宋昌漢, 「李栗谷의 禪觀에 대하여」, 『慶北史學』 3, 경북사학회, 1981. 한편 율곡의 척불론을 다룬 연구도 있다. 宋昌漢, 「李栗谷의 斥佛論에 대하여」, 『慶北史學』 5, 경북사학회, 1982 ; 오지섭, 「16세기 조선성리학파의 불교인식」, 『종교연구』 36, 한국종교학회, 2004 ; 오지섭, 「퇴계와 율곡의 불교인식」, 『선과문화』 2, 한국선문화학회, 2005 ; 오경후, 「李珥의 佛教認識에 대한 硏究成果와 課題」, 『율곡사상연구』 18, 율곡학회, 2009.

도교 자체는 이단으로 철저히 비판하였다.[3] 특히 율곡은 「辭命製摩尼山醮靑詞箚」(이하 「辭命箚」)와 「辭免命製摩尼山醮詞第二箚」[4](이하 「二箚」)을 올려 도교를 左道라고 하면서 醮에 쓰일 靑詞를 작성하라는 명을 거부하였다. 이는 율곡이 도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이수광(1563~1628)은 『지봉유설』(1614)에서, 율곡이 摩尼山醮靑詞를 지으라는 임금의 명을 받자 이를 左道라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만일 율곡이 아니었더라면 아무 일 없이 태연히 순종하고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율곡이 儒者로서 청사 작성을 거부한 일을 높이 평가하였다.[5] 그리고 정약용(1762~1836)은 『목민심서』(1818)에서, 고을에 淫祀하는 잘못된 관례가 전해 오는 것이 있으면 철폐해야 한다고 하면서 율곡은 청사의 저술을 사절하였으니 군자의 행동이 구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6] 이수광과 정약용이 언급했던 것처럼 율곡이 청사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인식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율곡이 「辭命箚」와 「二箚」를 올려 청사 작성의 명을 거부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율곡이 작성한 청사가 여럿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朴世采(1631~1695)가 편찬한 『栗谷先生外集』에 4편의 청사가 실려 있고[7], 정조 11년(1787)에 간행된 『文苑黼黻』에 청사 2편이 율곡의 제술로 수록되어 있다.[8] 이에 본고에서는 율곡의 청사 거부와 작성 문제에 대해

---

2) 『宋子大全』 권19 「進文元公遺稿仍辨師友之誣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乙丑九月三十日〉」, "文成公臣李珥 (…) 逮及十歲 盡通經書而曰 聖人之道 只此而已乎 於是泛覽佛老諸書 而於其中最好楞嚴一書 (…) 逮其入山之時 則又以儒道而合於禪 (…) 忽悟禪旨之非 (…) 遂棄而歸來 專心於聖學"

3) 율곡의 이단 비판에 대해서는 황의동, 「正統과 異端, 그 역사와 본질—율곡을 중심으로—」, 『율곡사상연구』 21, 율곡학회, 2010, 21-37면 참조.

4) 『栗谷全書』 권3 「辭命製摩尼山醮靑詞箚」; 『栗谷全書』 拾遺 권2 「辭免命製摩尼山醮詞第二箚」

5) 『芝峯類說』 권17 人事部 祭祀, "李栗谷在玉堂時 命製摩尼山醮靑詞 公上箚曰 殿下旣知其爲左道 不敢强使諫官製進 而乃命小臣 是諫官不可以左道事君 而講官猶可以左道事君 此眞儒者之言也 若非栗谷 則其有不帖然承當者乎" 이 내용은 『栗谷全書』 附錄에도 소개되어 있다. 『栗谷全書』 권38 附錄6 「諸家記述雜錄」, "李栗谷在玉堂時 (…) 若非栗谷 則其有不帖然承當者乎〈出李芝峯晬光類說〉"

6) 『牧民心書』 권7 禮典六條 祭祀, "其或邑有淫祀 謬例相傳者 宜曉諭士民 以圖撤毁 栗谷辭醮靑之詞 藥圃拒巫禱之香 君子之行 不可苟也"

7) 『栗谷外集』 권3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 「第二」, 「壽星醮靑詞」, 「無題靑詞」

8) 『文苑黼黻』 권20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 "(…) 大提學李珥製"; 「壽星醮靑詞」, "(…) 大提學李珥製"

주목해 보았다.

「辭命箚」와 「二箚」는 『율곡전서』에, 율곡의 청사는 『율곡선생외집』과 『문원보불』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율곡전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율곡선생외집』과 『문원보불』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결국 율곡의 청사 문제는 수록 문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먼저 율곡의 문집과 『문원보불』의 편찬 과정을 통해 율곡의 청사를 어떻게 수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율곡의 저술로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辭命箚」와 「二箚」를 통해 청사의 작성 경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율곡의 청사를 분석하여 16세기 조선에서 도교의 초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율곡 문집의 편찬과 靑詞

율곡의 문집은 여러 차례 편집, 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율곡전서』로 마무리되었다. 율곡의 문집으로 처음 편집된 것은 율곡의 仲兄인 李瑠이 錄寫한 草本 9卷이었다.[9] 이를 토대로 성혼과 박여룡 등이 다시 편집하여 시집 1권, 문집 9권으로 된 『栗谷集』을 완성하였다. 이를 광해군 3년(1611)에 처음으로 간행하였으니 이것이 초간본 『栗谷集』이다. 그런데 박세채는 『율곡집』의 편차와 수록 범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종 13년(1672)에 율곡 舊邸에 가서 문집의 초본을 열람하고는 속집의 편찬을 계획하였다. 그는 『율곡집』에 누락된 글과 해주, 강릉, 파주의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遺稿를 모아 숙종 8년(1682)에 『栗谷先生續集』(이하 『속집』)과 『栗谷先生外集』(이하 『외집』)을, 숙종 12년에는 『栗谷先生別集』(이하 『별집』)을 간행하였다. 영조 20년(1744)에는 李縡(1680~1746)가 『율곡집』·『속집』·『외집』·『별집』 등과 『성학집요』·『격몽요결』 등의 저서를 합해 38권으로 완성하고 『栗谷全書』라 하였다. 그리고 洪啓禧(1703~1771)는 拾遺 6권을 추가하여 모두 44권

9) 『栗谷全書』「栗谷先生全書修正凡例」, "玄石 (…) 續集外集 鱗次而成焉 一主文集草本〈草本 先生仲兄璠所錄寫 凡九卷〉"

으로 된 『율곡전서』 초간본을 영조 25년에 간행하였다. 순조 14년(1814)에는 중간본이 나왔는데, 이 중간본 『율곡전서』(이하 『전서』)가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율곡 연구에 있어 『전서』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에 비해 박세채가 편집한 『속집』·『외집』·『별집』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속집』·『외집』·『별집』이 발간 당시부터 율곡의 자료로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전서』가 율곡 문집의 최종본이라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10] 그러면 율곡의 청사가 어떻게 하여 『외집』에 수록되었는지, 그리고 율곡의 저술로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율곡의 청사는 초간본인 『율곡집』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박여룡은 선조 24년(1591)에 새로 편집한 『율곡집』의 초고를 교정하였는데[11], 이때 성혼에게 편지를 보내 摩尼山醮靑詞의 刪削 문제를 의논하였다. 성혼은 답서에서, 마니산초청사를 빼는 것은 지극히 옳다고 하였다.[12] 아마도 마니산초청사는 李璠이 정리한 율곡 문집의 草本에 실려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栗谷集』의 초고에 마니산초청사를 수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혼과 박여룡은 『율

10) 율곡 문집의 간행 과정과 논란에 대한 연구로는 유새롬, 「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韓國史論』 52, 서울대, 2006 ; 兪成善, 「石潭野史·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刊行過程의 思想的 推移 硏究」, 『漢文古典硏究』 2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 정호훈, 「16·1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저술·문집의 편찬과 정치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3, 한국사학회, 2011 ; 김태년, 「'正典' 만들기의 한 사례, 『栗谷別集』의 편찬과 그에 대한 비판들」, 『民族文化』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 오세현, 「박세채(朴世采)의 이이(李珥) 문집 편찬과 그 특징」, 『코기토』 9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20 ; 이경동,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儒學硏究』 52,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0 등이 있다.

11) 『牛溪續集』 권4 「與朴舜卿〈汝龍〉」, "示喩先先生文集 新寫九冊 舊本十三冊 李玉汝昨暫來矣 (…) 今番成草本 專荷尊公誠意之篤 歎仰無量 (…) 〈辛卯正月〉" ; "正寫之事 遲延至此 殊以爲悶 雖然必須先行校正二三次 然後乃可正寫 (…) 春初成草冊 倘非尊公力任 則何能到得今日耶 殊極歎服 又以結末之事 仰托如此矣 (…) 〈辛卯六月〉"

12) 『松崖集』 권3 「年譜」, "公姓朴氏 諱汝龍 (…) 隆慶 (…) 辛卯十九年 (…) 校讐先生文集 時公呈書牛溪稟以刪削 牛溪答書曰 摩尼靑詞刊去之喩 極是 伏願割落之幸甚 (…) 梅山洪祭酒直弼撰" 『율곡집』을 편집하면서 박여룡은 성혼과 상의하였는데, 받은 편지가 백여 장이었다고 한다. 『松崖集』 권4 附錄2 「家狀〈曾孫進士之望記〉」, "栗谷先生遺稿校讐編次之事 終始出於牛溪先生 而其主管蒐集刊行之役 則牛溪先生專付于沙溪先生及公 公前後稟白于牛溪先生者 縷縷甚多 而先生之所答 亦不啻百餘紙 有曰今番易成草本 專荷尊公誠意之篤 歎仰無量云 其見重於牛溪先生亦如此焉"

곡집』의 최종 교정 과정에서 마니산초청사를 수록하지 말자고 합의하였다. 성혼과 박여룡이 청사를 『율곡집』에서 삭제한 이유는 그것이 율곡의 사상과 배치되며 율곡의 평가에 누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율곡이 저술한 청사는 「辭命箚」와 상충된다. 「辭命箚」는 『율곡집』 권4에 실려 있다. 성혼과 박여룡이 「辭命箚」를 『율곡집』에 수록하기로 하였다면 청사를 싣는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 이 때문에 성혼과 박여룡은 율곡의 이단 배척을 잘 드러내고 있는 「辭命箚」는 『율곡집』에 수록하고 청사는 싣지 않았을 것이다.

『율곡집』에는 청사 외에도 많은 저술들이 실리지 못하였다. 성혼과 박여룡은 여러 이유로 율곡의 저술을 삭제한 채 『율곡집』을 간행하였다. 예를 들면 『經筵日記』는 당대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혼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율곡집』에 수록하지 않았다.[13] 이처럼 『율곡집』은 온전한 율곡의 문집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에 박세채가 『속집』, 『외집』, 『별집』 등을 편찬하게 되었다.

박세채는 평소에 『율곡집』이 소략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현종 13년(1672)에 율곡의 從玄孫 李紳이 박세채에게, "선생의 草藁가 지금 석담의 옛집에 있는데 모두 9권이고 상당수가 刊本에 수록되지 못했다."라고 말하였다. '선생의 草藁'는 李璠이 편집한 草本 9卷이고, '刊本'은 『율곡집』일 것이다. 박세채가 그 초고를 얻어 읽어보니 모두 해서체로 깨끗하게 필사되어 있었고, 제목의 아래에는 또한 甲子가 표기되어 있어 언제 지어진 것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박세채는 『율곡집』을 보완하고자 『속집』, 『외집』 등을 편찬하게 되었다.[14]

『외집』 卷首에 있는 「栗谷續外集所輯書籍後錄」은 박세채가 『속집』과 『외집』을 편찬하면서 참고한 자료 목록이다. 이 목록에 詩稿手筆, 文集草本 등이 포함되어 있다. 文集草本은 바로 율곡의 仲兄인 李璠이 필사한 것이었다.[15] 앞

13) 『경연일기』의 간행 과정에 대해서는 兪成善, 앞의 글, 2011, 53-64면 참조

14) 『南溪朴文純公文正集』 권68 「跋栗谷先生續集」, "世采 少讀栗谷先生文集 每恨其銓次鮮法 又間多缺而不備也 (…) 歲壬子適罹喪病 歸寓于白川 與先生所居海陽相接也 (…) 其從玄孫紳 爲世采詳言 先生草藁 方在石潭舊第者 凡九卷 頗有未及登於刊本者 (…) 世采於是亟取其藁而讀之 凡所錄寫皆作楷體 題下又輒具甲子 無不可識者 且得海陽臨瀛坡山及當時親舊所藏 (…) 目以續集 其餘亦以外集繼之"

서 살펴보았듯이 청사는 문집초본과 『栗谷集』 초고에 실려 있었다. 이에 박세채는 『율곡집』에 누락되었던 청사를 『외집』에 수록하였다. 『외집』은 8권 4책인데[16] 권3의 「靑詞」편에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己巳〉」, 「第二」, 「壽星醮靑詞」, 「無題靑詞」 등 4편이 실려 있다. 그리고 권3 「祝文 祭文」에 「醮祭兼行祈雨報祀祝文」이라는 제목의 축문이 있다.

요컨대 율곡의 청사는 문집초본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율곡집』에는 삭제되어 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박세채는 『외집』을 편찬하면서 문집초본에 있던 청사를 수록하였다. 그리하여 『외집』 권3 「청사」편에 4편이 실려 있고, 초제 축문이 1편 더 있어 율곡이 지은 靑詞는 모두 5편이 확인된다.

한편 율곡의 청사는 『전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전서』의 「수정범례」에는 편찬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율곡집』, 『속집』, 『외집』 등을 모두 합하고, 『격몽요결』과 같은 別著類를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李縡는 선생의 문집이 諸家의 문장에 견줄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道學을 밝히고 治體에 관한 것으로서 世敎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위주"로 편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삭제하는 원칙도 밝혔는데 漫戱吟詠 및 科文, 箚子·啓辭 중 일기와 중복되는 내용, 兩司 재직 때 올린 차자 중 중요하지 않은 것 등은 제외한다고 하였다.[17] 이재는 靑詞가 이러한 편집 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아 『전서』에 수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는 『전서』를 편집하면서 율곡의 5대손인 李鎭五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편지에서 청사를 삭제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5) 『栗谷外集』 「栗谷續外集所輯書籍後錄」, "文集草本〈卽全集草本 皆先生仲兄璠手寫者〉"

16) 『栗谷外集』의 권1은 賦와 詩, 권2는 批答·疎·啓辭·書·雜著, 권3은 書·記·箋·歌謠·靑詞·祝文祭文·墓碣銘·墓地銘, 권4~권8은 「經筵日記」로 되어 있다. 규장각, 연세대, 고려대 등에 零本이 소장되어 있고, 완본은 국립중앙박물관(구6267), 일본 大阪府立 中之島圖書館(韓9-44)이 소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것은 고려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다. 열람을 수락해준 두 기관과 담당자께 감사드린다.

17) 『栗谷全書』 「栗谷先生全書修正凡例」, "詩文續外四集 旣合而爲一 (…) 幷取先生所著 如聖學輯要 擊蒙要訣諸書錄之 改名之曰全書 (…) 先生文集 非諸家詞章文字之比 一以明道學關治體 有補於世敎者爲主 少時漫戱吟詠及科場程文之類 多刪去 (…) 箚啓全文之載於日記而疊出於集中者 亦皆刪去 院府啓辭無甚關係者 亦從刪定焉 (…) 太極問答一篇 則尤菴以爲出於宋龜峯 故不敢收入"

> 그간 보내신 籤紙에 대해 모두 조목조목 답해주었는데, 홍 표숙에게 준 서문 한 편은 무슨 이유로 유독 누락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 글은 문장이 좋기는 하나 처음 산을 나올 때의 氣味와 관계되니 正道에 순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科體詩와 장난삼아 지은 靑詞를 산삭한 뜻으로 미루어보자면 산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물을 숨기려고 한 데서 산삭하는 것이 아닌데, 후인들은 혹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 저는 老先生(율곡)의 문집이 다른 문집의 事體와는 남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외집』은 이제 교정을 시작하여 절반도 하지 못했고, 원집의 교정은 渼湖相公에게 부탁하였습니다.[18]

이재는 「別洪表叔序」가 純正한지 의문을 품었고, 과체시와 청사를 산삭한 뜻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런데 삭제하려고 했던 「別洪表叔序」는 『전서』에 수록되었지만[19], 청사는 결국 실리지 않았다. 이재는 『외집』에 실려 있는 청사를 '戱作'이라 하였으며, 「別洪表叔序」와 같이 순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이재가 율곡의 청사를 『전서』에 수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희작이며 순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수정범례」에서 밝힌 대로 道學과 治體, 그리고 世敎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는 율곡의 문집이 다른 문집의 事體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辭副校理疏」에서 율곡은 한때 불교에 침잠하였던 일을 반성하고 후회하였으며, 불교에 대해 배척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불교에 종사하였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20]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학문이 순정하였음을 드러내고, 또한 벽이단에 철저하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율곡이 청사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외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

18) 『陶菴集』 권12 「答李丹城」, "(…) 前後來籤 無不逐條踏往 洪表叔一序 何故獨爲見漏 亦未可曉也 (…) 此文 文章則儘好 而係是初出山時氣味 未覺其純於正 以科體詩及戱作靑詞刪沒之意推之 刪去爲得 然此非出於欲爲諱過而然 後人無或誤認如此否 (…) 愚以爲老先生文集 與他集事體自別故也 如何 外集方自此校讎未及半 原集則屬於渼湖相公矣"

19) 『栗谷全書』 권13 「別洪表叔〈浩〉序」

20) 『孝宗實錄』 권3 효종 1년 2월 을사, "慶尙道進士柳樓等九百餘人上疏曰 (…) 李珥之割棄天倫 逃遁空門 固已得罪於名敎 (…) 李珥早事異敎 舊習未祛 好爲躐等而實地未踏 蜃樓虛幻 旣非吾儒家計" ; 『顯宗改修實錄』 권8 현종 4년 6월 병오, "慶尙道儒生金鋼等數百人上疏 略曰 李珥早値家釁 從事禪門 (…) 論者比之於橫渠之晩逃佛老 橫渠豈眞入叢林耶"

무척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이재는 『율곡전서』를 편찬하면서 靑詞를 戱作이라 하여 수록하지 않았다. 결국 『전서』에서 율곡의 청사를 수록하지 않은 것은 이단 배척에 철저한 순정한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만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재가 청사에 대해 '戱作'이라고 표현한 것은 청사를 율곡의 저술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박세채의 외손인 申曔(1696~1766)은 이재가 『전서』를 편찬하면서 『속집』과 『외집』의 6~7할을 제거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박세채가 신중하게 수집하여 『속집』과 『외집』에 수록한 것을 이재가 『전서』에서 함부로 제외하였다고 비판하였다.[21] 이처럼 이재의 『전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율곡의 저술이 많았다. 그리하여 洪啓禧는 이재의 『전서』에 拾遺 6권을 추가하여 44권으로 된 『전서』 초간본을 영조 25년에 간행하였다.

홍계희는 「습유수정범례」에서, 『전서』를 편찬된 후에 남은 저작을 습유로 편집하였는데, 『속집』이나 『외집』에 수록된 것 중에서 타인의 저작으로 의심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채록하지 않으며, 科場程文 등은 수록한다고 하였다.[22] 그리고 홍계희는 「습유발」에서 이재가 『전서』를 편찬하면서 世道와 斯文에 관련이 있는 것만 취하고 산만한 글들은 수록하지 않았으니 대략 原集에서 열에 한둘을 삭제하였고, 『속집』과 『외집』에서 열에 한둘만을 남겼다고 하였다. 홍계희는 이재의 편집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였다.[23] 따라서 『외집』과 『속집』에 실린 많은 저술이 여전히 습유에 수록되지 못하였는데, 홍계

---

21) 『直菴集』 권10 「書栗谷先生集後」, "栗谷老先生詩集文集 (…) 刊行于世六十餘年 玄石朴先生講讀之餘 惜其尙多散逸 (…) 爲續集八卷 外集八卷 (…) 爲別集六卷 (…) 近者 李判書熙卿 毁動原集及續外別集 合爲一帙 名以栗谷全書 而于原集 刪其十之一二 于續外兩集 刪其十之六七 于別集 沒其題目而稱爲附錄 至謂玄翁所嘗收拾者 或有不能必其爲先生所作者 或有來歷不甚分明者 噫 此何言也 (…) 玄翁早已十分愼重 盡善盡美矣 熙卿 以眇然後生 何敢議其踈漏乎"

22) 『栗谷全書』 「栗谷先生全書拾遺修正凡例」, "一全書印役旣訖 復取編餘文字之散在於詩文續外四集者 編爲拾遺 一續外集所載詩文 或有明知其爲他人作者 或有不能必其爲先生作者 或有來歷不甚分明者 則一併刪去 以存謹嚴之義〈文集草本六冊 卽先生仲兄璠手自繕寫者 而間錄他人所作 或不著作者姓名 故外續集修正時 不免有混錄之患 今不得不刪〉 一科場程文 多不收錄於原編 而拾遺事體 視原編稍輕 旣知其爲先生作 則不敢刪去"

23) 『栗谷全書』 「拾遺跋」, "吾師陶菴李先生 始編全書 一取其有關於世道斯文者 而閒漫文字幷不錄 大約於原集十刪一二 於續外集十存一二 (…) 士友有語啓禧曰 陶翁去取固至矣 然後學於先生慕仰無極 雖片言雙字之出於殘編斷簡者 亦皆藏弃而愛重之 (…) 欲見而未之得者 且續外集 多有他作之混入 而其或來歷之不明者 間有之 陶翁之有意 存刪蓋出於是"

희 역시 율곡의 청사를 습유에 수록하지 않았다. 홍계희는 스승인 이재가 청사를 희작이라 하여 『전서』에 수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따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외집』에 있던 醮祭 祝文 1편은 응제문이라 하여 습유에 수록하였다.[24]

『외집』에 있던 청사는 율곡의 희작이라 하여 『전서』에 실리지 않았지만 정조가 편찬한 『文苑黼黻』에는 수록되었다. 『문원보불』은 조선초기부터 정조 초까지 閣館의 문장을 類別로 모아 엮은 것으로 정조 11년(1787)에 간행되었다. 정조는, "이전에 지어진 문장의 자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자취를 모은 문헌이 하나도 없어 문장을 담당한 관리가 어지럽게 규범을 벗어나 멋대로 문장을 짓는다."고 하였다. 이에 東人文集에서 좋은 문장을 類別로 뽑았고, 徐命膺 家藏의 『館閣文程』을 덧붙여 묶었다고 하였다. 『문원보불』은 모두 20항목인데, 「악장」 항목에 「청사」가 부기되어 있다.[25]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文苑黼黻』 권20 靑詞 및 출전 문집

	청사 제목	내용	작자 표기	출전 문집	비고
1	昭格署祈雨靑詞	大道爲萬有之宗 (…) 百穀用成	없음(徐居正)	『續東文選』 권19, 昭格署雷聲普化天尊祈雨 ; 『四佳文集』 補遺2	徐居正 (세종 2~성종 19)
2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	神之格 不可度 (…) 咸得其所	大提學 李珥製	『栗谷外集』 권3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	李珥 (중종 31~선조 17)
3	壽星醮靑詞	太虛寥廓 (…) 萬民於壽域	大提學 李珥製	『栗谷外集』 권3 壽星醮靑詞	
4	分野星醮三獻靑詞	經緯于天 (…) 祈天永命	吳健製	『德溪集』 권2 分野星親行祭文	吳健 (중종 16~선조 7)

24) 『栗谷外集』 권3 祝文 祭文 「醮祭兼行祈雨報祀祝文」 ; 『栗谷全書』 拾遺 권3 應製文 「醮祭兼行祈雨報祀祝文」

25) 『弘齋全書』 권180 羣書標記2 「文苑黼黻四十二卷〈刊本〉」, "此卽國初以來館閣文字之裒聚者 予在春邸時所編也 歲乙巳 復取御極以後各體增益之 (…) 至丁未書成 以壬寅字印行 其目二十 曰玉冊文 (…) 曰祭文 曰樂章附靑詞 (…) 曰露布 親撰序曰 (…) 文苑之泯其迹也舊矣 (…) 使處其職者 憒憒焉自放於規矩之外 夫擬議之不得 (…) 爰取東人文集 (…) 會與賓客徐命膺言 知有家藏館閣文程若干卷 仍竝取附益之 (…) 右丁未編"

5	太一醮三獻靑詞	聲臭無聞 (…) 民物共戴於冥冥	具鳳齡 製	『栢潭集』 권7 太一醮三獻靑詞	具鳳齡 (중종 21~선조 19)
6	昭格署眞武醮靑詞	靡神不告 (…) 永無金革之聲	具鳳齡 製	『栢潭集』 권7 昭格署眞武醮靑詞	

『문원보불』의 「청사」 항목에는 모두 6편이 수록되어 있다. 청사에는 첫 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자가 표기되어 있다. 『문원보불』에는 율곡 저작의 청사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와 「壽星醮靑詞」 말미에 "大提學李珥製"라고 표기되어 있다.[26] 『외집』에 실린 4편의 청사 중에서 2편이 실린 것이다. 『문원보불』은 『동문선』과 『속동문선』을 이어 모범이 되는 문장을 망라하여 수록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동문선』과 『속동문선』에도 청사가 수록되어 있다.[27] 즉, 정조는 문장을 담당한 관리가 참고해야 할 규범이 되는 문장으로 여겨 율곡의 청사를 『문원보불』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율곡의 청사는 『율곡집』과 『전서』에는 없으나 문집초고와 『외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정조가 편찬한 『문원보불』에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와 「壽星醮靑詞」가 "李珥製"라고 하여 이들 청사의 작자가 율곡임을 분명히 밝혀놓았다. 『율곡집』, 『외집』, 『전서』 등의 편찬 과정과 『문원보불』의 기록으로 볼 때 율곡이 청사를 작성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3. 「辭命箚」의 검토

『외집』과 『문원보불』을 통해 율곡의 청사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율곡은 「辭命箚」와 「二箚」를 지어 청사 작성을 거부하였다. 그러면 이들 箚子와 청사 작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辭命箚」는 『율곡집』과 『전서』에[28], 「二箚」는 『속집』과 『전서』 습유에 수

26) 율곡만 관직을 표기하였다. 실제 작성 시기와 달리 '大提學'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가 文衡이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이었을 것이다.

27) 『東文選』 권115 「靑詞」에 고려와 조선시대의 청사가 각각 18편씩 모두 36편이, 『續東文選』 권19 「靑詞」에는 조선시대 청사 5편이 실려 있다.

28) 『栗谷集』 권4 「辭命製摩尼山醮詞箚」 ; 『栗谷全書』 卷3 「辭命製摩尼山醮靑詞箚」

록되어 있다.[29] 그런데 「二箚」에 '己巳'라는 간지가 표기되어 있다. '己巳'라는 갑자는 문집초본에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30] 「二箚」에 '己巳'라고 하였기 때문에 第一箚에 해당하는 「辭命箚」도 기사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율곡의 생존 시기로 볼 때 기사년은 선조 2년(1569)이다. 그런데 이들 차자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연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율곡우계이선생연보』의 「율곡선생연보」에는 무진년인 선조 1년(1568) 겨울조에 기재되어 있다. 박세채의 「율곡연보」에는 기사년인 선조 2년 9월조에 기록하였다. 박세채는 이 차자가 기사년에 작성되었다고 하였지만 몇 월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우선 9월조에 둔다고 하였다. 『전서』의 「연보」도 박세채의 「율곡연보」를 따랐다.[31] 그런데 차자의 내용을 보면 이 차자는 선조 2년 기사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辭命箚」에서, "마니산 참성단 초제의 삼헌청사는 전하께서도 그것이 左道임을 이미 알고 계시니 감히 간관에게 지어 바치라고 강요하지는 못하고 소신에게 명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율곡 자신이 講官으로 論思의 직에 있다고 하였다.[32] 이 내용에 따르면 「辭命箚」는 율곡이 講官으로 있으면서 올린 것이다. 그리고 「二箚」에서 율곡은, 마니산 초는 좌도인데 經幄의 신하에게 醮詞를 지으라고 명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은 바야흐로 『孟子』의 闢邪衛道之說을 진강하려 하오니 결코 부정한 글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33] 「二箚」를

---

29) 『栗谷續集』 권2 「辭免命製摩尼山醮詞第二箚〈己巳〉」; 『栗谷全書』 拾遺 권2 「辭免命製摩尼山醮詞第二箚〈己巳〉」

30) 『南溪朴文純公文正集』 권68 「跋栗谷先生續集」, "從玄孫紳 爲世采詳言 先生草藁 方在石潭舊第者 凡九卷 ((…)) 世采於是亟取其藁而讀之 凡所錄寫皆作楷體 題下又輒具甲子 無不可識者"

31) 『栗谷牛溪二先生年譜』 「栗谷先生年譜」, "隆慶 (…) 二年〈宣祖 (…) 元年〉戊辰 (…) 冬 (…) 拜弘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 上箚辭製摩尼山醮詞之命"; 『南溪朴文純公文正集』 권85 「栗谷李先生年譜上」, "隆慶 (…) 三年己巳 (…) 九月 (…) 上箚辭命製摩尼山醮詞〈 (…) 此條不知的在何時 姑附于此〉"; 『栗谷全書』 권33 「年譜上」, "己巳三年 (…) 九月 (…) 上箚辭製摩尼山醮詞之命 (…) 〈此條 不知的在何時 姑付于此〉"

32) 『栗谷全書』 권3 「辭命製摩尼山醮靑詞箚」, "今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 殿下旣知其爲左道 不敢强使諫官製進 (…) 臣雖無狀 待罪經筵 縱未能仰裨聖德 盡廢左道 亦安敢頑然製進此文 以玷論思之職乎 大抵非禮不正之事 未或知之 猶可爲也 旣或知之 不可不革"

33) 『栗谷全書』 拾遺 권2 「辭免命製摩尼山醮詞第二箚〈己巳〉」, "夫摩尼之醮 殿下旣知其爲左道矣 豈無外臣而必命經幄之臣製其詞乎 臣方以孟子闢邪衛道之說進講 決不敢製此非禮不正之文 殿下必欲命臣 則請先遞臣職

통해 율곡이 강관으로서 『맹자』를 진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율곡이 강관으로 있으면서 『맹자』를 진강하고 있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율곡은 선조 2년 8월에 홍문관 교리로서 경연에서 『맹자』를 진강하였다. 『맹자』의 진강은 8월 丁巳日에 명종을 태묘에 부묘한 후에 시작되었다. 이이의 『맹자』 진강은 10월까지 이어졌다. 이때 율곡은 강관으로서 선조에게 여러 진언을 올렸는데 가납되지 않자 휴가를 얻어 강릉으로 갔다.[34] 이처럼 율곡이 경연에서 『맹자』를 강한 시기는 기사년인 선조 2년 8월부터 10월까지였다. 따라서 「辭命箚」는 이 시기에 올린 것이다.

율곡은 마니산 초는 좌도이며, 따라서 禮가 아닌 不正한 글을 지을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그러나 두 번이나 올린 율곡의 차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세채는 「율곡연보」에서 「上箚辭命製摩尼山醮詞」의 대략을 소개하고 말미에 "不許申辭"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35] 문집초본을 통해 율곡이 청사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박세채는 이 차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전서』의 「연보」에도 박세채가 서술한 대로 "不許申辭"라고 하였다. 그러면 율곡은 왜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결국엔 청사를 짓게 될 것일까.

율곡이 청사 저술의 명을 사양한 것은 중종 때에 조광조가 소격서 혁파를 관철시킨 일과 비교할만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은 명종 21년(1566)에 異端之敎를 禁斷해야 한다고 하였고[36], 선조 2년(1569)에는 非禮無福한 기도를 폐지하여 祀典을 바르게 하고 奉佛의 구습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37] 그리고 神을 섬기는 법은 三代의 禮를 따르게 한 후에야 왕도를 이룰

然後乃命製進 以示殿下抑邪扶正之意"

34) 『栗谷全書』 권28 經筵日記, "隆慶三年己巳 今上二年 (…) 八月 (…) 弘文館校理李珥上疏辭職 優答不許 (…) 丁巳 (…) 李珥於經席 進講孟子 (…) 冬十月 (…) 珥於經席 因講孟子 至王顧左右而言他 啓曰 當今民生困瘁 (…) 設使孟子問上以何如 則自上將何以答之耶 上不答 珥知上無求治之志 遂有去志 (…) 乞解官歸省 上賜暇使歸"

35) 『南溪朴文純公文正集』 권85 「栗谷李先生年譜上」, "隆慶 (…) 三年己巳 (…) 九月 (…) 上箚辭命製摩尼山醮詞〈略曰 (…) 尙且因循不革 則他復何望 不許申辭 (…) 〉" ; 『南溪朴文純公文外集』 권11 「栗谷先生年譜攷證三」, "上箚辭摩尼山醮祠註 他復何望下 添不許申辭"

36) 『栗谷全書』 권3 「諫院陳時事疏〈丙寅〉」, "故以用賢次之 其目有三 (…) 二曰振士氣者 (…) 專以講學力行爲急務 至於異端之敎 惑世之術 一切禁斷"

37) 『栗谷全書』 권3 「玉堂陳時弊疏」, "罷非禮無福之禱 以正其祀典 至於淨業院等胡神之廟在京城者 一切破

수 있는데, 三淸의 醮를 아직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왕도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38] 「辭命箚」에서도 율곡은 소격서와 마니산의 초례가 非禮 不正한 제사라고 하였다. 초례가 非禮 不正이라는 주장은 선조 3년에 올린 「擬陳時弊疏」에서도 확인된다.[39] 이처럼 율곡은 불교와 소격서·마니산의 초를 부정한 제사라고 비판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율곡은 조광조처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았다. 조광조가 중종에게 밤새 간하여 소격서 폐지를 윤허 받은 것에 대해 金正國(1485~1541)은 조광조가 군주를 핍박하였다고 하여[40]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퇴계는 소격서의 일이 군신간의 의리로는 그럴 수 없으며, 조광조가 지나쳤다고 하였다. 퇴계는 조광조가 당시의 사세와 역량을 헤아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묘년의 失政이 여기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였다.[41] 선조 즉위년(1567) 10월에 조광조를 추증하고 文正이라 시호하였는데, 이때 율곡은, "옛사람은 반드시 학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 도를 행하기를 구하였고, 도를 행하는 요점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조광조에 대해 평하기를, 학문이 크게 이루어지기도 전에 너무 갑자기 요직에 올라 위로는 임금의 마음의 그릇됨을 바로잡지 못하였고, 충성과 간절함을 다했는데도 참소를 입어 죽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율곡은 조광조의 죽음이 뒷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징계하여 감히 바른 정치를 해 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아쉬워하였다.[42] 그리고 선조 6년(1573)에 율곡은 일을 함에는 점진적으

毁 而先王後宮 俾處別殿 一洗變形奉佛之舊習 夫如是則敎化明於上 風俗變於下"

38) 『栗谷全書』 권15 「東湖問答〈己巳月課〉」 「論敎人之術」, "主人曰 (…) 用人合周官之度 事神遵三代之禮 然後王道之至者 可庶幾也 今者 田無限制而貧富懸絶 民無檢束而鄕約廢壞 (…) 三淸之醮 尙未絶其異敎 宗廟之禮 尙未合於古制 則王道之至者 烏可易言耶"

39) 『栗谷全書』 권4 疏箚2 「擬陳時弊疏」, "殿下臨御四年 而非常之災 (…) 其二曰 正祀典以改煩黷 (…) 以崇非禮之祀 祖宗在天之靈 豈無未安之懷乎 (…) 昭格署摩尼山等不正之祀 一切革罷 夫如是則祀事得正" 이 疏 중의 "殿下臨御四年"은 선조 즉위 4년으로 선조 3년 경오년이다.

40) 『思齋集』 권4 「摭言」, "戊寅年 臺諫請革昭格署 累月不允 弘文館亦逐日論啓 (…) 日暮 臺諫皆退 光祖仍留不出 終夜論啓 至鷄鳴不止 上不得已允之 (…) 大內嚴密之地 中使徹夜出入 煩啓不已 人君亦豈無厭聽之意 人臣諫君 當納約自牖 未有逼迫至此 而得保其事者也 光祖敗後 卽命復立"

41) 『燃藜室記述』 권8 中宗朝故事本末 己卯黨籍 趙光祖, "公天品甚高 而學力恐未深造 其論昭格署一事可見君臣之義 豈容如是此 靜菴有些過當處矣 堯舜君民 雖君子之志 豈有不度時不量力 而可以有爲者哉 己卯之失政 坐此也 (…) 〈退陶言行錄〉"

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광조를 다시 언급하였다. 율곡은 조광조가 중종의 지우를 받아 크게 사업을 할 가망이 있었으나 일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아 소요함을 면하지 못해서 소인이 틈을 타 사림을 해쳤다고 하였고, 기묘 인물들이 일을 함에 점차로 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율곡은 지금까지 정사를 맡은 사람들이 기묘년의 일로써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다.[43] 이처럼 율곡은 일은 점진적으로 해야 하며, 군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율곡은 조광조가 중종을 몰아 붙여 소격서 혁파를 급박하게 추진할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조광조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소격서 혁파 문제를 경계했던 율곡은 청사를 지으라는 선조의 명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율곡은 知製敎로서 청사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문관의 관원들은 경연관을 겸무하였고 부제학에서 부수찬까지는 지제교를 겸하였다.[44] 율곡 역시 정5품의 교리로서 시독관을 맡았으며 지제교를 겸하였을 것이다. 즉, 율곡은 교리로서 경연관으로 있었고 지제교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사 작성의 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청사를 비롯한 국가제례의 제문은 지제교가 작성하였다.[45] 소격서와 참성단의 초례는 국가제례로 거행되고 있었기 때문에[46] 지제교로서 청사 작성의 명을 받은 율곡은 청사

---

42)『栗谷全書』권28 經筵日記, "明宗 (…) 二十二年 (…) 七月丙辰 今上卽位于勤政門 (…) 十月 (…) 贈趙光祖 (…) 爲議政 諡光祖曰文正 (…) 謹按 古之人必待學成 乃求行道 行道之要 莫先於格君 惜乎趙文正 以賢哲之資經濟之才 學未大成 遽昇當路 上不能格君心之非 下不能止巨室之謗 忠懇方輸 讒口已開 身死國亂 反使後人懲此不敢有爲"

43)『栗谷全書』권29 經筵日記, "萬曆元年癸酉 今上六年 (…) 十月 (…) 同副承旨李珥曰 整齊嚴肅 不特外貌爲然也 (…) 珥曰 (…) 爲治須以唐虞爲期 而事功則須以漸進也 (…) 臣意亦非欲遽見其效也 只欲今日行一事 明日行一事 漸入佳境耳 (…) 己卯年間 趙光祖見遇於中廟 有大有爲之望 第以年少士類作事無漸 未免騷擾 小人乘間起害士林 至今任事者 以己卯爲戒 己卯之作事無漸 雖過矣 豈不愈於今日之全不做事乎"

44)『經國大典』吏典 京官職 經筵, "掌講讀論思之任 以他官兼 竝用文官 (…) 正四品 侍講官 正五品 侍讀官 (…) "; 『經國大典』吏典 京官職 弘文館, "提學以上 以他官兼 皆帶經筵 副提學至副修撰 又帶知製敎〈文官六品以上 亦擇差〉"

45)『世宗實錄』권101 세종 25년 7월 경오, "藝文大提學趙末生啓 凡大小祭文 必以知製敎製進 敎可而後用之 獨昭格殿醮禮靑詞 以藝文館參外官員製述 辭意未盡 有違大體 請令知製敎製進 受敎可用之 從之"

46)『春亭集』追補「三淸靑詞」, "昭格爲殿 旣嚴禳禱之儀 塹城有壇 又謹春秋之醮 此國典之常爾"; 『成宗實錄』권162 성종 15년 1월 갑진, "左副承旨李德崇等 啓曰 (…) 醮祭亦祀典之大者 其來亦久"

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다른 문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소격서 복립 이후부터 선조대까지 율곡 외에도 청사를 작성한 유학자들이 확인된다.[47] 선조대에도 소격서에서는 초례가 계속 거행되고 있었음으로[48] 그때마다 청사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당시 관료들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소격서의 초례가 부정한 제사라고 생각하였지만 관직에 있는 처지에서는 공무로서 이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선조 5년(1572)에 소격서 참봉에 제수된 이지남은 소격서의 醮가 非禮이지만 제사에 정성을 다함은 有司의 직분이라고 하였다.[49]

요컨대 율곡은 두 번에 걸쳐 차자를 올려 청사의 명을 거부하였다. 그가 청사 작성을 명을 받은 것은 선조 2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교리로서 강관과 지제교를 맡고 있었을 때였다. 그는 강관으로서 좌도의 부정한 글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차자는 선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율곡은 지제교로서 마니산초에 대한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외집』과 『문원보불』에 수록된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가 바로 선조에게 명을 받고 지은 것이다.

4. 청사의 내용과 의의

『외집』 권3에는 청사 4편과 초제 축문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2편은 마니산초의 청사로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己巳〉」(이하 「塹城醮靑詞」)와 「第二」이다. 마니산 참성단에서 초례를 거행한 것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리하여 참성단 초례 거행 때에 사용할 청사를 작성하였

47) 『栢潭集』 권7 「太一醮三獻靑詞〈祈雨應製〉」, 「摩利山塹城醮三獻靑詞」 ; 『嘯皐集』 卷4 續集 「摩利山祈雨塹城醮三獻靑詞」, "五月維夏 神馭泠然 三陲告災 民命近止 (…) 入承丕緖 三年匪懈 (…) 春不雨夏仍不雨 (…) 麥大無禾又大無 實是前代之罕有" 朴承任(1517~1586)의 청사는 5월에 거행된 기우초인데, 왕업을 계승한지 '三年'이라 하였으니 선조 3년일 것이다.

48) 『宣祖實錄』 권14 선조 13년 11월 경오, "上未寧 (…) 夕以疾勢危急 遣重臣分禱社稷宗廟木覓三角昭格署漢江 (…) 松岳等處" ; 『宣祖實錄』 권26 선조 25년 5월 을유, "禮曹 以文昭延恩祭供 (…) 昭格署祭供 事變時勢難封進 啓請全減 (…) 上從之"

49) 『記言』 別集 권22 「永膺李先生墓銘」, "先生諱至男 (…) 昭敬(:宣祖)五年 選才學士 先生爲薦首 除昭格署參奉 時祀禮廢弛 先生曰 太一齋醮 雖非禮之禮 精禋不愆 有司職耳 整勅祀事 無不肅敬"

는데, 그 청사가 여러 편 남아 있다.[50]

율곡의 「塹城醮靑詞」를 보면, 神의 강림은 헤아릴 수도 없고 上淸에서 소리와 냄새도 없다고 하면서 반드시 정성이어야 밝은 신령이 下界에 응하시니 작은 衷心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갈한 초례에 제물을 진설하여 眞境과 통하려 한다고 하였다.[51] 이처럼 율곡은 신이 상청에 있으며, 초례를 거행해 진경과 통하려 한다고 하였다. 상청은 三淸의 하나로 도교에서 말하는 천상 세계이다. 그리고 율곡이 말한 진경은 바로 三淸境으로 옥청경·상청경·태청경이다. 이곳에는 도교의 三神인 元始天尊, 太上道君, 太上老君이 각각 주재하는데, 원시천존은 도교의 최고신이며 태상노군은 老子를 존칭한 것이다. 그런데 마니산 초의 기원 대상은 옥황상제, 노군 등이었다.[52] 따라서 율곡이 이 청사에서 언급한 상청의 신은 바로 옥황상제와 노군이다. 그리하여 그는 청사에서, 길일을 택해 정결히 제사를 베푸니 그윽한 도움을 주어 임금에게 복을 주시고 休徵이 날마다 이르러 만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53] 이 청사는 임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 청사에는 거행 시기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나 제목의 세주에 '己巳'라고 기재되어 있다. '己巳'라는 세주는 문집초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54] 참성의 초례는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에[55], 이 청사도 봄・가을의 정기적인 초례의 청사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辭命箚」는 선조 2년 8

50) 마니산초 청사는 율곡의 2편 외에 권근 1편, 변계량 1편, 박승임 2편, 구봉령 1편 등이 남아 있다. 『陽村集』 권29 「塹城醮靑詞」, 『春亭集』 追補 「麻利山塹城醮禮三獻靑詞」, 『嘯皐集』 권4 續集 「摩利山祈雨塹城醮三獻靑詞」・「又」, 『栢潭集』 권7 「摩利山塹城醮三獻靑詞」

51) 『栗谷外集』 권3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 "神之格 不可度 泯聲臭於上淸 徵之顯 必以誠 昭靈應於下界 敢邀高駕 以竭卑衷 (…) 淨醮旣陳 眞境孔通"

52) 『中宗實錄』 권27 중종 11년 12월 경신, "領事金應箕曰 (…) 臣三爲摩尼山香使 見祭之時 祀玉皇上帝配之以老子 又有二十八宿 書之于板 又以閻羅王祀之"

53) 『栗谷外集』 권3 「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 "玆擇吉日 用設精禋 伏望俯諒頼惊 黙加玄佑 景福川至 一人永孚于休 休徵日臻 萬姓咸得其所"

54) 『南溪朴文純公文正集』 卷68 「跋栗谷先生續集」, "其從玄孫紳 爲世采詳言 先生草藁 方在石潭舊第者 凡九卷 (…) 世采於是亟取其藁而讀之 凡所錄寫皆作楷體 題下又輒具甲子 無不可識者"

55) 『春亭集』 追補 「三淸靑詞」, "塹城有壇 又謹春秋之醮 此國典之常爾" 3월과 9월에 거행한 초례의 청사는 다음과 같다. 『春亭集』 追補 「麻利山塹城醮禮三獻靑詞」, "暮春涓吉 恭展醮筵" ; 『栢潭集』 권7 「摩利山塹城醮三獻靑詞」, "玆展淨醮之事 式丁秋季之辰"

월과 10월 사이에 올린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사의 세주에 '기사(년)'라고 한 것으로 볼 때 「塹城醮靑詞」는 선조 2년 가을의 마니산초의 청사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第二」 청사이다. 제목이 「第二」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塹城醮靑詞」와 같은 마니산초의 청사일 것이다. 이 청사에서, 때마다 길일을 택해 제사를 지내 下界의 정성을 다하니 上淸의 부림을 내려 달라고 하였다.[56] 그리고 삼헌에서, "생각건대 予冲人은 왕업을 이어받아 봄에 얼음을 밟은 듯하고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하여 항상 편안함이 없어 上帝의 법칙을 따르고 민심으로 인하여 자나 깨나 스스로 힘써왔습니다. 이에 暮春을 맞아 엄숙하고 깨끗한 醮壇을 마련하였습니다."[57]라고 하였다. 이 청사는 앞의 청사와는 달리 暮春(3월)이라는 특정한 시기가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第二」는 봄인 3월에 거행되는 참성초를 위해 작성된 청사이다. 청사에서, 予冲人이 왕업을 이어받았다고 하였으니 율곡의 관력으로 볼 때 予冲人은 宣祖일 것이다. 율곡은 29세 때인 명종 19년(1564)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좌랑이 되었고, 고위직을 맡게 된 것은 선조대 이후였다. 그리고 『전서』의 「연보」에 의하면 그가 3월에 관직에 있었던 해는 선조 1년(지평), 선조 7년(우부승지), 선조 14년(대사간), 선조 15년(이조판서), 선조 16년(병조판서) 등이었다. 「第二」는 3월에 거행된 초례의 청사로,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조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청사가 「辭命箚」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第二」는 3월의 초례임으로 「辭命箚」와는 시기가 부합되지 않는다. 즉, 「第二」는 제목의 약칭으로 이 역시 마니산 참성초 청사라 생각되는데, 첫 번째 청사인 「塹城醮靑詞」와는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율곡이 여러 해에 걸쳐 청사를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壽星醮靑詞」이다. 이 청사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자질로 어렵고 중대한 왕업을 삼가 계승하였다고 하고, 신을 맞이하고자 祭壇을 설치하였다고

56) 『栗谷外集』 권3 「第二」, "時吉鐲而明禋 敢殫下界之誠 冀降上淸之馭"

57) 『栗谷外集』 권3 「第二」, "念予冲人 叨承丕緖 躡春氷蹈虎尾 夙夜靡寧 順帝則因民心 寤寐自勗 爰値暮春之節 肅載淨醮之壇 伏望申錫純禧 毋嫌瀆告 二氣時若 俾受交泰之祥 五典克從 致膺咸熙之慶"

하면서 五福이 이어지고 만백성이 天壽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였다.[58] 왕업 계승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청사는 선조대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사의 초례는 壽星, 즉 老人星에 대한 제례였다. 노인성은 장수와 길흉을 주관한다고 믿었는데, 도교에서는 南極壽星真君 또는 星君이라 존칭하고 초례를 거행하였다.[59] 수성에 대한 醮는 고려 때부터 거행되었다.[60] 조선에서도 노인성이 나타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壽와 창성함을 주관한다고 믿어 노인성에 제사하여 무병 장수를 기원하였다. 노인성은 항상 추분 아침에 나타났다가 춘분 저녁에 사라진다고 하여 춘분과 추분에 제사하였다.[61] 노인성에 대한 제례는 고려 이래 도교식으로 거행되었다. 그런데 노인성 제사는 태종 11년(1411) 1월에 변화를 맞이하였다. 의정부에서 건의하기를, 봄・가을로 노인성에 제사할 때 특생을 사용하나 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소격전에서 기르게 하니 이제부터는 이를 적전에 주자고 하였다. 이에 태종은 『문헌통고』에서 노인성의 제사 의식을 보고서 예조에 명하기를, 노인성의 제사에 제단을 쌓고 희생을 사용하게 하여 한결같이 『문헌통고』의 옛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도 소를 진설하기는 하나 이를 굽지 않는 것은 고려의 폐단으로 희생을 사용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춘분・추분에 노인성에 제사하였는데 이제는 周의 제도를 따라 추분에 한하여 남교에서 제사지내고, 제단의 제도는 송 정화 때의 『오례신의』에 따를 것을 건의하였다.[62] 이처럼 태종 11년까지 노

58) 『栗谷外集』 권3 「壽星醮靑詞」, "太虛寥廓 泯聲臭於上淸 少陽昭回 垂靈應於下界 肅迓玄馭 恭設淨壇 (…) 玆庶陰庶之非遠 致令三光允協 調一氣於洪勻 五福交臻 躋萬民於壽域"

59) 『太上感應篇』 권23, "太極真人徐來勒嘗遇南極壽星真君 請問壽夭吉凶之事 星君曰 天道福善而禍婬 神明賞順而罰逆 君能刻意為善 恭己順天 靜將道宜 動與福會" ; 『靈寶領教濟度金書』(『正統道藏』 道部 洞玄部) 권245 「壽星醮儀」, "具位臣某與臨壇官衆等謹焚香上啓 上淸十一曜星君 北斗七元延生星君 南斗六司延壽星君 (…) 南極老人壽德星君 (…)"

60) 『高麗史節要』 권11 의종 24년 4월 신사, "親醮老人星于內殿 (…) 乙巳 (…) 以壽星再見 命太子醮于福源宮 平章事許洪材 醮于賞春亭" ; 『東國李相國全集』 권40 「老人星醮禮文〈秋旦行〉」, "久視長生 須荷照臨之助 載占旦見 彌罄心齋 肅陳酌彼之儀 佇枉冷然之馭"

61) 『世宗實錄』 권32 세종 8년 5월 임자, "禮曹啓 (…) 按晉書天文志 老人一星在弧南 一曰南極 常以秋分之朝見于丙 春分之夕沒于丁 見則平治 主壽昌 常以秋分 候之南郊 後漢 於國都南郊 立老人星廟 常以仲秋祀之 則壽星爲老人星矣 (…) 本國 秋分之朝 祀老人星於南郊" ; 『經國大典註解』 後集 禮典 春官 宗伯 祭禮條 老人星, "秋分候之南郊 明大則人主有壽 天下安寧 不見則人主憂 兵起歲荒 客星入 爲民疫"

인성 제사는 춘분·추분에 거행되었고, 제물인 특생은 죽이지 않았으며 제사 지낸 다음에는 소격전에서 길렀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이제부터 제사는 남교에서 추분에만 지내고, 희생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이때부터 노인성 제사에 도교의 요소가 제거되고 유교의 제사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老人星祭의 儀注는 세종 8년 5월에 다시 정해졌는데, 이때도 희생을 통째로 삶아 익혀 사용하도록 하였다.[63] 노인성단은 숭례문 밖 둔지산에 있었으며, 제사는 소사로 거행되었다.[64] 이렇게 하여 노인성 제사는 유교식 제사로 정착되어 추분에 남교에서 거행되었다. 그런데 소격전에서 초례로 거행되는 노인성 제례, 즉 수성초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중종 15년에 중종은 소격전의 복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병조판서 고형산은 소격서 제사가 左道요 非禮라고 하였고, 형조판서 홍숙은 소격서가 비록 『경국대전』에 실려 있으나 이는 사특하고 망령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호조판서 한세환은 노인성 제사가 좌도에 가깝고 헌관의 옷과 관대도 모두 다르다고 하면서 소격서의 복설을 반대하였다.[65] 이러한 한세환의 지적은 노인성에 대한 제례가 소격전에서 초례로 거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초례에는 道士가 참여하여 道經을 읽고 청사를 불태웠다. 성종 25년(1494) 봄에 成俔은 소격전에서 거행한 초제의 헌관이 되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성현은, "獻官과 署員은 모두 흰옷에 검은 두건을 하고 재계하며, 또 관을 쓰고 홀을 들고 예복을 입고서 제사를 지냈는데, 道流는 머리

62)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 1월 임신, "命禮曹老人星祭築壇用牲 一依文獻通考舊制 議政府上言 春秋祭老人星 用特牲而不殺 祭後畜于昭格殿 乞移給籍田 先是 上覽文獻通考 祭老人星之儀 乃有是命 禮曹上書曰 (…) 本朝於老人星祭用牛 取法古制也 尙循前朝之弊法 陳牛而不燔 甚非用牲之意也 宜放周制 燔牲升烟 (…) 本朝於春秋分祭之 蓋取秋見春沒之義而祭之也 宜放周制 止於秋分 祭于南郊 其壇之制 取宋政和五禮新儀 (…) 從之"

63) 『世宗實錄』 권32 세종 8년 5월 임자, "禮曹啓 (…) 乞依元豊禮制 不設角亢 只設老人星而祀之 祭品亦依小祀例 從之 儀注 (…) 前祀一日 (…) 晡後 典祀官帥宰人割牲〈連皮煮熟〉 祀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 設老人星座於壇上 北方南向"

64) 『世宗實錄』 지리지 京都漢城府, "老人星壇 圖壇 (…) 〈皆在崇禮門外屯地山〉";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 辨祀, "小祀 靈星老人星馬祖名山大川 (…)"

65) 『中宗實錄』 권38 중종 15년 1월 경술, "兵曹判書高荊山 刑曹判書洪淑 (…) 戶曹判書韓世桓 (…) 上引見 (…) 荊山曰 昭格署祭祀之事 乃左道非禮也 淑曰 昭格署當革之論 久有之 雖載在大典 乃邪妄之事 今若復立 中外人心 必皆駭愕 世桓曰 老人星外山川 雖云依禮文 然近於左道 獻官所着衣服冠帶 皆殊常 不可復立也"

에 소요관을 쓰고 몸에는 얼룩얼룩한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사 두 사람이 道經을 읽고 또 祝辭를 푸른 종이에 써서 태우는데, 그 하는 일이 어린애 장난 같았다고 하였다.[66] 이를 통해 초례에 도사가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세환이 노인성 제사가 좌도에 가깝고 헌관의 옷과 관대도 모두 다르다고 한 것은 노인성에 대한 제례가 도교의 초례로 거행되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율곡의 「壽星醮靑詞」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壽星醮靑詞」라는 제목에서 노인성에 대해 거행하는 초례임을 알 수 있고, 내용에서 "肅迓玄馭 恭設淨壇"라고 하였다. 청사 「第二」에서 "肅載淨醮之壇"이라 한 것을 보면 淨壇은 淨醮之壇으로 초례가 거행되는 장소, 즉 소격전이나 참성단을 지칭한다. 노인성초가 거행되는 淨壇은 소격전이었을 것이다. 成俔은 소격전의 諸壇에 모신 신의 위패가 수백이라고[67] 하였으니 그 중에는 노인성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율곡의 「壽星醮靑詞」는 임진왜란 전까지도 노인성에 대한 제례가 도교제례인 초례로도 거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南壇에서는 유교식의 老人星祭가 거행되었다. 소격서와 초례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지되었는데, 수성초(노인성초)도 이때 폐지되어 더 이상 거행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無題靑詞」인데 구체적인 제목이 없어 무슨 초례인지 알 수 없다. 이 청사에서, 太淸이 빛을 드리워 묵묵히 塵界를 도우시니 봄(載陽)에 吉日을 받아 공손히 醮筵을 설행한다고 하면서 신령한 보살핌을 드리우기를 바라나 정성이 어찌 帝에 이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청사는 淨壇에서 태청의 帝에게 임금의 장수와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으로[68] 특기할 만한 것은 없다.

---

66) 『慵齋叢話』 권2, "宮中誕兒 有捲草之禮 (…) 命大臣多子無災者 三日齋于昭格殿 設醮祭 (…) 甲寅春元子誕生 余爲獻官行此事也 大抵昭格署 皆憑中朝道家之事 (…) 獻官與署員 皆白衣烏巾致齋 以冠笏禮服 行祭祭奠諸果餻餠茶湯與酒 焚香百拜 道流頭冒逍遙冠 身被班斕黑衣 鳴磬二十四通 然後兩人讀道經 又書祝辭於靑紙而焚之 其所爲有同兒戱 而朝廷仕職 虛奉祓祀 一祭所入 其費不貲"

67) 『慵齋叢話』 권2, "昭格署 (…) 太一殿 祀七星諸宿 (…) 三淸殿 祀玉皇上帝太上老君普化天尊梓潼帝君等十餘位 (…) 其餘內外諸壇 設四海龍王神將冥府十王水府諸神 題名位版者 無慮數百矣"

68) 『栗谷外集』 권3 「無題靑詞」, "太淸垂輝 默佑塵界 載陽涓吉 恭設醮筵 冀諒卑悰 特紆靈鑑 愧之一德 叨主百神 升聞馨香 誠豈臻於格帝 瞻仰象緯 祝徒切於惠寧 玆就淨壇 肅迓玄馭 昭明孔邇 顯應非虛 眉壽萬年 可

이 청사에서 언급한 淨壇은 소격전으로, 태청의 帝는 삼청전의 옥황상제와 태상노군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載陽의 길일에 醮를 거행한다고 하였으니, 이 청사는 선조 때의 어느 해 봄에 소격전에서 거행한 초례의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祈雨醮祭에 대한 報祀祝文이다. 「醮祭兼行祈雨報祀祝文」은 삼각산, 백악산, 한강, 목멱산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 삼각산에 대한 報祀는 초제로 거행한 것이다. 제목에서 초제라고 밝혔고, 내용에서는 "淨醮是因"라 하였다.[69] 즉, 이 축문은 삼각산의 祈雨醮祭와 백악산, 한강, 목멱산 등의 기우제에 대한 報祀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報祀는 제사를 지낸 후 기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보답으로 지내는 제사로 입추 후에 거행되었다.[70] 기우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사 제도는 태종 11년에 정해졌다. 이때 종묘, 사직, 북교, 목멱산, 양진, 한강, 백악산 등에 기우하고 이에 대해 보사하도록 하였다.[71] 태종 16년에 예조에서 祈雨啓目을 올렸는데, 삼각산, 한강, 목멱산 등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였다.[72] 그리고 성종 5년에는 예조에서 아뢴 祈雨行事에도 삼각산, 목멱산, 한강 등의 기우제가 포함되어 있다.[73] 「醮祭兼行祈雨報祀祝文」에 의하면 삼각산에서 기우 초례가 거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각산에서 초제를 거행하였음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白嶽神祠와 木覓神祠에서 매해 봄·가을에 초제

齊岡陵之不老 本支百世 佇綿瓜瓞之無窮"

69) 『栗谷外集』 권3 祝文 祭文 「醮祭兼行祈雨報祀祝文」, "三角山 巖巖神宅 澤我烝民 爰擧賽禮 淨醮是因 白岳山 維神默佑 惠我祁祁 于以吉蠲 祀而報之 漢江 滔滔維漢 紀我邦畿 式嘉陰惠 恭陳報儀 木覓山 猗嗟羣黎 仰賴神庥 報以精禋 歆格是永"

70) 『世宗實錄』 권128 五禮 吉禮序例 時日, "宗廟及諸神祀祈告 (…) 報祀〈或因事祈告 若値得所祈 則報謝 如祈水旱則待立秋後報謝〉"; 『栗谷全書』 拾遺 권3 應製文, 「社稷大祭兼行立秋後祈雨報祀祝文」

71)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 5월 계미, "禮曹上報祀之制 啓曰 比者 時雨愆期 殿下憂閔黎元 命祈宗廟社稷及北郊木覓楊津漢江白岳 至於土龍畫龍蜥蜴 (…) 殿下閔雨之誠 先格皇天 雨澤滂沱 (…) 謹考報祀之制 (…) 上項七所報祀 乞依古制 從之"

72) 『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6월 을축, "禮曹上祈雨啓目 (…) 曹曾使齋郎習誦雲漢篇 今雩祀圓壇請歌之 且於望祈北郊及就風雲雷雨三角山漢江木覓社稷宗廟雩祀祈雨祀 亦皆歌之 (…) 從之"

73) 『成宗實錄』 권44 성종 5년 윤6월 계사, "禮曹啓 各處祈雨應行事件 具錄于後 依此行之何如 一宗廟社稷北郊漢江三角木覓風雲雷雨雩祀 行祈祭 一太一及雷聲普化天尊 設祈醮 一漢江楊津沈虎頭 又令道流讀龍王經 朴淵沈虎頭 一京城各戶 祀門焚香 一慕華館池邊用蜥蜴祈禱 一造東方靑龍 南方赤龍 中央黃龍 西方白龍 北方黑龍 行祈祭 一楮子島行畫龍祭 一開北門 閉南門 一勿擊皷"

를 거행하였는데, 삼각산 제사는 白嶽神祠에서 지낸다고 하였다.[74] 백악산은 都城의 鎭山으로 제사는 中祀로 거행되었고, 木覓祠의 제사는 小祀였다.[75] 백악신사와 목멱신사에서 매해 봄·가을에 초제를 거행한 사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만 기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율곡의 「醮祭兼行祈雨報祀祝文」을 통해 백악신사에서 삼각산에 대해 기우 초례를 거행하였고, 이에 대한 報祀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초제 축문은 입추 후에 거행된 것이지만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다.

요컨대 율곡은 4편의 청사와 1편의 초제 제문을 작성하였다. 율곡은 마니산초 청사를 작성하라는 명을 받고 이를 거부하는 차자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塹城醮靑詞」를 지었는데, 이는 선조 2년 가을에 거행된 마니산초의 청사로 생각된다. 「第二」 청사도 마니산 참성초 청사로 생각되며, 선조 때의 어느 해 3월에 거행된 초례의 것이다. 「壽星醮靑詞」는 노인성 초례 때의 청사인데, 선조대 초기의 어느 해 추분에 소격전에서 거행된 초례의 청사로 보인다. 이 청사를 통해 노인성에 대한 제례가 老人星祭 외에 초례로도 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無題靑詞」는 선조 때의 어느 해 봄에 소격전에서 거행된 초례의 것이다. 「醮祭兼行祈雨報祀祝文」은 삼각산에서 초제와 報祀가 거행되었음을 알려준다. 초제 보사는 입추 후에 거행되었다. 이처럼 율곡의 청사 5편은 모두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는데, 이는 율곡이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차례 청사를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율곡이 지제교로서 청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선조 때까지 소격서와 참성단의 초례가 국가제례로 거행되고 있었으며, 성리학자로서 이를 좌도로 비판하였지만 결국은 관료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5. 맺음말

7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祠廟, "白嶽神祠〈在白嶽頂 每春秋行醮祭 中嶽三角山就祭于此 三角神在北南向 白嶽神 在東西向 木覓神祠〈在木覓山頂 每春秋行醮祭〉"

75)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都漢城府, "都城鎭山曰白嶽〈山頂有祠宇 祀三角之神 附以白嶽 爲中祀〉 木覓祠〈在都城南山之頂 小祀 (…) 〉"

율곡 이이는 한때 불교에 심취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간 이후로는 불교, 도교 등의 이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율곡은 불교에 침잠하였던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였으며, 불교에 대해 배척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율곡은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고, 도교제례인 초례를 부정한 제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율곡은 초례의 청사를 작성하라는 선조의 명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중종 때에 조광조가 소격서 혁파를 강력하게 주창하여 관철시킨 것과 비교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선조 2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율곡은 청사 저술의 명을 받자 이를 거부하는 차자를 두 번이나 올렸다. 그러나 율곡은 조광조와 달리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 소격서는 조광조의 주도로 혁파되었다가 그가 몰락한 후에 복구되었다. 복구 이후에도 소격서 폐지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으나 소격서와 도교제례인 초례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소격서의 혁파와 복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조광조의 몰락은 소격서 폐지가 결코 신하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율곡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개혁에 있어 군주의 마음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소격서와 도교와 같은 이단의 척결에도 군주의 결심이 중요하였다고 보았다. 소격서와 참성단에서 거행된 초례는 여전히 국가제례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선조는 청사를 작성하라는 명을 율곡에게 내렸다. 율곡은 청사를 작성하라는 군주의 명을 끝내 거부하지 못하였다. 초례는 여전히 국가제례로 거행되고 있었으니 율곡은 지제교로서 선조의 명에 따라 청사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율곡이 작성한 청사는 『외집』과 『문원보불』에 실려 전하고 있다. 그러나 율곡 문집의 초간본인 『율곡집』, 그리고 최종본이라 할 수 있는 『율곡전서』에는 청사가 실려 있지 않다. 율곡은 계속해서 불교에 종사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곡 문집의 편집자들은 그의 학문이 순정하였음을 드러내고, 또한 벽이단에 철저한 성리학자였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율곡이 청사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문집초본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율곡집』에서는 청사를 제외하였

고, 이재는 『율곡전서』를 편찬하면서 청사를 戱作으로 보고 수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세채는 『율곡집』에 율곡의 저술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박세채는 문집초본에 있던 청사를 『외집』에 수록하였다. 율곡이 저술한 청사는 『외집』에 5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 두 편이 『문원보불』에 수록되었다.

율곡의 청사는 마니산 참성초 청사 2편, 수성초 청사 1편, 제목이 없는 청사 1편, 초제 보사 축문 1편 등이다. 이들 청사와 축문은 모두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율곡이 여러 해에 걸쳐 청사를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율곡의 청사 작성은 율곡이 성리학자로서 초례를 좌도로 비판하였지만 결국은 관료로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도교의 초례는 선조 때에도 여전히 국가제례의 하나로서 소격전과 참성단에서 거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節要』
『記言』
『南溪朴文純公文正集』
『陶菴集』
『東文選』
『牧民心書』
『文苑黼黻』
『栢潭集』
『思齋集』
『松崖集』
『宋子大全』
『新增東國輿地勝覽』
『陽村集』
『燃藜室記述』
『慵齋叢話』
『牛溪集』
『栗谷續集』
『栗谷外集』
『栗谷牛溪二先生年譜』
『栗谷全書』
『栗谷集』
『朝鮮王朝實錄』
『芝峯類說』
『直菴集』
『春亭集』
『太上感應篇』
『弘齋全書』

김태년, 「'正典' 만들기의 한 사례, 『栗谷別集』의 편찬과 그에 대한 비판들」, 『민족문화』 43,한국고전번역원, 2014, 77-115면.
배종호, 「栗谷의 理通氣局說—華嚴思想의 理事와 比較—」, 『東方學志』 27, 국학연구원, 1981, 17-63면.
徐首生, 「退栗의 佛教觀」, 『한국의 철학』 15,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7, 35-60면.
송석구, 「율곡 사상의 불교적 계기고」, 『동서 사상의 만남』, 형설출판사, 1982.
_____, 「불교와 이율곡의 철학」, 『한국의 유불사상』, 思社研, 1985.
宋昌漢, 「李栗谷의 禪觀에 대하여」, 『慶北史學』 3, 경북사학회, 1981, 93-103면.

宋昌漢, 「李栗谷의 斥佛論에 대하여」, 『慶北史學』 5, 경북사학회, 1982, 113-135면.
오경후, 「李珥의 佛敎認識에 대한 硏究成果와 課題」, 『율곡사상연구』 18, 율곡학회, 2009, 117-151면.
오세현,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이이(李珥) 문집 편찬과 그 특징」, 『코기토』 9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20, 177-210면.
오지섭, 「16세기 조선성리학파의 불교인식」, 『종교연구』 36, 한국종교학회, 2004, 33-72면.
_____, 「퇴계와 율곡의 불교인식」, 『선과문화』 2, 한국선문화학회, 2005.
유새롬, 「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韓國史論』 52, 서울대, 2006, 7-72면.
兪成善, 「「石潭野史·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刊行過程의 思想的 推移 硏究」, 『漢文古典硏究』 2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53-64면.
이경동,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儒學硏究』 52, 忠南大 儒學硏究所, 2020, 1-37면.
李聖田, 「栗谷의 佛敎觀」, 『釋山韓鍾萬博士華甲紀念 韓國思想史』, 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1.
李丙燾, 『栗谷의 生涯와 思想』, 瑞文堂, 1973.
이희재, 「율곡의 불교관」, 『율곡사상연구』 11, 율곡학회, 2005, 155-176면.
정호훈, 「16·1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著述·文集의 편찬과 政治論을 중심으로」, 『史學硏究』 103, 한국사학회, 2011, 75-120면.
崔承洵, 「栗谷의 佛敎觀에 대한 硏究」, 『江原大學論文集』 11, 강원대, 1977, 29-56면.
황의동, 「정통과 이단, 그 역사와 본질—율곡을 중심으로—」, 『율곡사상연구』 21, 율곡학회, 2010, 21-37면.

【Abstract】

The Reviewal of Yi I's Taoist prayer

Kim, Cheol-Woong*

Yulgok Yi I is a representative Neo-Confucian scholar of Joseon Dynasty. He was very critical of Taoism. Thus, Taoism was treated as heresy, and he rejected the order of King Seonjo to write Taoist prayer, Cheongsa.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he has written several Cheongsa. The Taoist prayer by Yulgok contains five in YulgokOejip and two in Munwonbobul.

Requests for refusal to write Taoist prayer are included in Yulgokjip and Yulgokjeonseo. This shows that Yulgok is critical of heresy and that his studies were pure. Yulgok's refusal to order the writing of Cheongsa can be said to be comparable to the abolition of Sogyukjeon led by Jo Gwang-jo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But, unlike Jo Gwang-jo, Yulgok did not insist on his will until the end. Yulgok saw that the determination of King Seonjo was important in the abolition of the Sogyeokseo and the eradication of heresy. However, The Taoism rituals held in Sogyukjeon, and Chamsungdan was still one of the national rituals, and King Seonjo ordered him to write Cheongsa. In this situation, Yulgok could not reject the order to write Cheongsa until the end. As a Jijegyo, he was forced to write Taoist prayer.

All five prayers written by Yulgok were held at different times. This means that Yulgok wrote prayers over the years. In the end, the fact that Yulgok wrote prayer shows that Taoist rituals continued to be held as a national ritual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and Yulgok was a Neo-Confucian scholar, but as a bureaucrat, he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Taoist ritual.

Keywords: Yi I, Taoism, Taoist prayer, Sogyukjeon, Chamsungdan, YulgokOejip, Yulgokjeonseo.

접수일: 2021.12.30.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15.

* Professor, Liberal arts college, Dankook Univ.